

국가 혁신시스템과 혁신동학

1. 국가 혁신시스템 대한 이슈

Korres(1996)에 의하면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은 연구 활동과 함께 기술정책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고 한다. 국가혁신시스템의 광범위한 정의는 경제구조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협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조직과 제도의 관계된다.

Mckelvey(1991)는 국가 혁신시스템은 광범위한 개념이며 특정 국가의 경제 활동에서 혁신의 창출 프로세스와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혁신시스템은 혁신이 어떻게 도입되며 확산되는가, 어떻게 국가의 경제는 차이가 있으며 혁신이 경제적 변화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은 사회적, 제도적 또는 기술적일 수 있으나 혁신 개념은 흔히 기술적 변화, 특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기술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적 변화에 대한 지배적 견해는 과학은 기술을 선도하고, 기술은 경제 성장을 선도한다는 변화의 선형적 이해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혁신 접근의 국가적 시스템은 과학적 지식의 생산은 기술적 변

화의 하나의 조건이며 국가의 다른 특화 요소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Freeman(1987)은 국가 혁신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속한 제도의 네트워크(network)로 정의하고, 네트워크에 의한 활동과 상호작용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수입하고, 변환하여, 확산시킨다고 한다. 그는 국가 혁신시스템의 초점을 국가가 새로운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나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법에 두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그는 일본의 혁신에 기여한 제도로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 정부 정책 (특히 통산성의 정책)
- 협력적 연구 개발 (특히 수입된 기술에 관계하여)
- 교육과 훈련 시스템



교수 이 경 환
한국산학경영학회 회장
인하대 경영대학
032-860-7735
leekh@inha.ac.kr



● 산업의일반적구조와기업분위기

일본은이러한제도로하여금새로운사회제도적 패러다임(socialinstitutional paradigm)이나, 사회적행동, 지배적정부정책및 생산을조직화하는 방법과같은지배적행동패턴에중요한변화를의미하는조건에적응하게함으로써경제혁신을도모하였다.

Lundvall과 Edquist(1992)에 의하면국가적혁신시스템은연구개발및 기술혁신시스템뿐만아니라 새로운기술이어떻게생산성과경제적성장에영향을미치는가를결정하는제도와요인을포함해야한다고한다. 이들은덴마크와스웨덴의연구에서 제도와산업구조를대상으로하였다. 제도는산업화의역사적경험및 공식적인연구활동과같은 다양한요소를포함하며, 산업구조는장학혁신적인 산업분야를통해서, 또는서로다른 유형의 정보채널을지원하는관계의다양성(diversity of linkage)을 통해서이해될수 있다. 학습은정보수집과밀접하게관계된다. 왜냐하면정보는비용을수반하지않고누를수없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의관계에서 사람들은참여에의해서 학습활동을한다. 예로서사용자와생산자의관계는 정보의교환을가능하게한다. 사용자그들의 욕구(market pull)를표현하고생산자는새로운기술이나혁신(technology push)을나타낼수 있다.

Pate과 Pavitt(1988)에 의하면국가적제도와이들의보상구조와능력이기술적학습을이나방향뿐만아니라제품설계, 제품공학, 품질관리, 요원의 훈련, 시제품개발및 검사와같은변화창출활동의크기와구성을결정한다고한다. 이들은다음의 네 가지 유형의제도와이들의관련된활동이 국가 혁신시스템의중심특성으로인식되고있다고한다.

- 기업(특히변화창출활동에자하는기업들)
- 기초연구에관계된훈련을 제공하는대학이나 이와유사한연구소
- 일반교육과직업훈련을제공하는공적및 사적제도들의구성(nixture)
- 기술적변화를촉진하고규제하는정부의 다양한활동

Lundvall 등(1985)에 의하면국가 혁신시스템을 위한 기술적변화의방향과변화율에영향을주는 제도와경제적구조로구성된다는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이러한시스템은기술확산및 연구개발 시스템뿐만아니라신기술이생산성과경제적 성장에어떻게영향을주는가를결정하는제도와요인을포함한다고한다.

Porter(1990)는 특정국가가기업의혁신적인활동을어떻게지원할수 있는가에관심을가지고이를 요소조건(factor condition), 수요조건(demand condition), 관련및 지원사업, 기업전략구조및 경쟁자의네 요인으로설명하고있다. 요소조건은 전통적인자연자원(natural resource)과함께 기업이나과학적활동에요구되는기능과같은 국가가 창출한생산요소를포함하고있다. 수요조건은수요의 구성과특성(the composition and character)을 의미하며, 특정조건 충족될경우수요조건은 혁신의자극제가된다(예로서구매자가가다롭거나, 자국시장에서 해당산업이 지배적이거나, 시장에서 소비와관련된 가치가국제적으로확산될 경우). 관련 및 지원 산업은 산업군집을형성하며국제적으로경쟁력이있어야한다. 관련산업과의연결(linkage)과 공급자/구매자관계는밀접한작업 관계나새로운부품이나기계에대한접근을가능케 하며정보의흐름을원활하게한다. 기업전략과 구조및 경쟁자는국가적환경에많은영향을받는

다. Porter는 이러한 네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국가가 어떻게 혁신적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 혁신 시스템은 주로 기술 혁신과 이를 통한 국가 경제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제도화하고 네트워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한 바와 같이 혁신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의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 변화를 위한 프로세스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에 효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 혁신 시스템은 국가나 국가에 속한 국민의 효익 증진을 위한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국가나 국민의 효익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정치, 사회 및 문화와 같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추구되어야 함으로써 국가 혁신 시스템은 경제적,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효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국가 혁신 시스템은 주로 기술 변화를 통한 국가의 경제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혁신은 제도화하고 네트워크만의 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경쟁 시장 메커니즘이나 정치적, 사회적 또는 동기 변화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 혁신을 제도화하고 네트워크에 의존한 경우 국가의 경제 발전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는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권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권력들은 사회 동학으로 국가의 컨텍스트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구성원으로써 금목적적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국가 혁신 시스템을 위해서는 제도화하고 네트워크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회

동학에 의한 권력 순환적 접근이 보다 바람직하다.

2. 권력 순환과 국가 혁신 시스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 혁신 시스템은 국가나 국가에 속한 구성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 변화를 유발하는 시스템이다. 혁신은 자연적 산출물이 아니라 사회적 산출물이다. 이러한 국가 혁신 시스템은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확산시키는 사회적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출된 혁신이 국가 구성원들에 계확산될 때, 이러한 혁신은 혁신의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편익을 국가나 국가 구성원들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적 수준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러한 기술 혁신이 기업이나 산업에 널리 확산되어 사용될 때 기술 혁신에 의한 경제적 편익을 국가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다.

논의한 바와 같이 혁신은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변화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혁신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집단, 조직과 같은 국가를 구성하는 권력체들의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노력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 혁신은 경제주체들에 의한 의도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이며, 국가의 정치 혁신은 정치주체들이나 국가 구성원들의 의도적인 노력의 산출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 혁신의 주체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의 구성원들이나 권력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은 논의한 바와 같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단체, 집단과 같은 국가의 구성원들은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권력 원천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혁신은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변화의 프로세스이며 국가 구성원들의 원천 원천의 창출에 의한 이러한 목적 달성 능력은 혁신과 이것의 확산을 의미한다. 예로써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의 확산을 통해 성장도모한다. 정치주체들은 정치적 권력을 창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 과 함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자한다. 경제주체들과 정치주체들의 이러한 권력 창출과 확산의 노력이 국가적 수준에서나 국가 구성원들에 대한 의을 유발할 경우 이는 곧 국가의 경제 혁신이나 정치 혁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적 달성 과 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곧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러한 혁신 활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치주체들이 창출한 경제 제도는 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주체들이 이한 경제 혁신은 정치주체들의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로는 이들간의 상호교환이 내력적 또는 경쟁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질서나 제도 와 같은 권력 원천을 창출한다. Alter와 Hage(1993)에 의하면 네트워크(network)는 조직들의 제한된 또는 제한되지 않은 집단(cluster)라고 한다. 즉 네트워크는 조직들간에 교환이나 협력적 활동 및 공동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형태의 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주체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교환을 수만하

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관계(예로써 정보나 지식의 교환 관계)가 있다(Axelesson과 Easton, 1992). Rogers(1983)는 개인 간 네트워크는 조직 경계를 넘어서 정보의 소통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는 혁신의 확산에 중심이 된다고한다. 조직간의 공식적인 관계에 의한 네트워크보다 때로는 공식화 수준이 낮은 네트워크가 혁신 확산 프로세스에 중요하다(Swan과 Newell, 1995). 확산 연구에 의하면 서로 다른 사회 집단간에 느슨한 연결(weak ties)이 새로운 아이디어 확산에 중요하다(Granovetter, 197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서로 다른 활동주체들간에 네트워크에 의한 다양한 관계는 혁신의 창출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적 컨텍스트는 혁신의 창출 및 확산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적 컨텍스트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현대 시장 시스템의 기능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다. 국가적 혁신 시스템은 지식 생산하는 공식적인 제도, 지식 생산에서 이들의 전문성(their specialization in knowledge production), 확산 매카니즘, 조직 과 기능 및 서로 다른 제도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다(Nelson, 1992). 논의의 한바와 같이 국가 사회는 비가시적, 가시적 및 가시적 권력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권력들은 사회 동학으로서 국가 구성원으로써 하여금 목적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게한다. 혁신은 논의의 한바와 같이 의도적이거나 목적 지향적인 프로세스이며 사회주체들의 혁신적 행동은 국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권력의 작용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국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권력은 국가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혁신적 행동을 유발하는 국가

적 컨텍스트로써 의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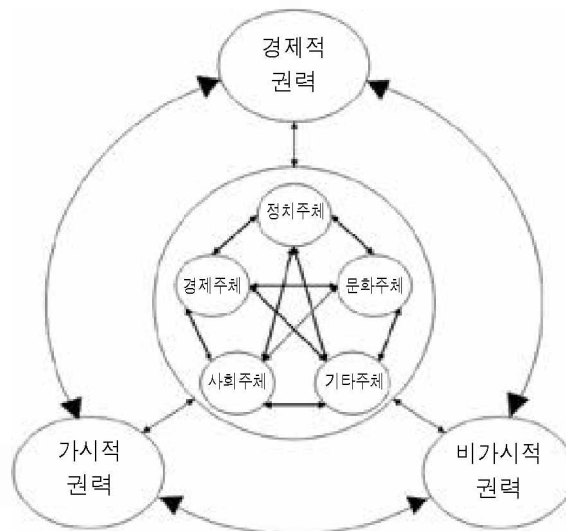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적 수준에서의 혁신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의 혁신 지향적 행동과 이들의 네트워크 및 세 가지 권력으로 구성된 국가 컨텍스트에 의해 유발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주요 활동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타 분야로 구분할 때 국가의 혁신 시스템은 이러한 분야에 활동 주체들 간에 네트워크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권력에 기반한 사회 동학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 혁신 시스템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국가 혁신 시스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타의 주체들은 혁신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혁신 주체들의 혁신 지향적 행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다

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혁신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진다. 또한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 권력은 국가적 컨텍스트로써 이러한 혁신 주체들의 목적 지향적 행동이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지배하는 질서를 창출한다. 이러한 권력은 혁신 주체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한다. 따라서 흔히 이러한 질서는 혁신 주체들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들로 하여금 혁신 주체들이 혁신 활동을 유발하는 때,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국가 혁신 시스템과 국가 성장 동학

논의한 바와 같이 혁신은 긍정적 효익 증진을 위한 의도적이거나, 목적 지향적인 변화의 프로세스



<그림 2-1> 국가 혁신 시스템

다. 따라서 혁신의 성공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긍정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혁신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혁신은 혁신 그 자체로 씨끝이나 고사화에 확산되지 못한다. 또 다른 혁신은 사회나 조직에 확산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혁신의 성공은 혁신이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확산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나 국가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효익의 유발을 의미한다. 혁신의 성공은 혁신주체의 혁신의 도나 동기, 혁신의 긍정성과 함께 이것의 확산 프로세스에 크게 의존한다.

1) 긍정적 동기 부여와 권력 프로세스

동기(motive)는 유기체로 하여금 목적 지향적 행동을 지휘하는 내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예로써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 추동(drive), 가치 및 욕구는 내면에 형성된 내적 에너지로써 목적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고, 활성화시키고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동기는 내적 욕구나 외적 자극에 대한 내적 동학의 대응 유형에 따라 형성된다. 예로써 추동 이론에 의하면 심리적 욕구는 유기체로 하여금 기계처럼 작용케 한다. 왜냐하면 유기체는 욕구에 의해서 밀쳐지고 당겨지기 때문이다. 욕구에 의해서 동기 부여된 유기체를 추동 상태에 있다고 한다. (Lefton과 Brannon, 2006) 동기 부여의 인지 이론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목적과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지 이론가들은 생각이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거나 결정하는 요소라고 한다. (McClelland, 1961)

혁신은 긍정적인 효익 증진을 위한 목적 지향적인 변화의 프로세스다.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동기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긍정적 인동

기는 긍정적인 목적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예로 든 동기 부여 방법 이외에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 추동, 가치, 욕구뿐만 아니라 내적 에너지가 언체나 긍정적인 동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기체에게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욕구에 의한 추동이나, 인간의 인지 작용에 의한 생각이 언체나 긍정성을 보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 이외에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성에 한계가 있다.

논의 한바와 같이 권력 프로세스는 인간으로 하여금 목적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권력 원천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다. 이러한 권력 프로세스가 인간의 내적 동학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동기 부여 프로세스로써 인간의 내면에 동기를 형성한다. 또한 권력 프로세스는 논의 한바와 같이 권력 주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 객체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의 결합체인 권력 원천을 창출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 추동, 가치 및 욕구와 같은 내적 에너지가 권력 프로세스에 의해서 형성될 경우 이러한 내적 에너지는 긍정적인 동기로써 작용한다. 따라서 국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림 1>의 혁신주체들로 하여금 권력 프로세스에 의한 동기 부여가 요청된다.

2) 동기 부여와 권력 동학

Vogel(1986)은 성격(personality)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의식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정신적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이들은 지각이나 생각과 같은 의식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무의식은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적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이들은 억압된 생각이나 느낌뿐만 아니라 의식의 세계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심리적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Cox(1968)에 의하면 무의식

은 인간으로하여금의식의세계에아이디어, 생각, 감정및 이미지를유발한다고한다. 우리가무의식으로부터채로운것들을받지않을 경우우리의 의식의세계는결코 개발되지않을 것이라고한다.

Leagan(1980)은 동기를개인에게가치있는목표에 도달하고자하는욕구(needs)들로 정의하고인간의 성격에는행동을활성화하여일정한방향으로 조직화하는힘, 즉 동기가존재한다는것을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인정한다고한다. Vogel(1986)은 우리가인지하지못하는동기가있다고한다. 이러한동기는인간으로하여금알지못하는가운데어떤일을하게한다.

앞에서우리는인간의내적동학은내적요구나외부적자극에따라동기를유발한다는것을논의하였다. 그러나모든동기가외부로표출되어행동으로나타나는것은아니다. 동기부여를충분히 성장하지못한동기나, 사회적동학이나환경과같은외적작용에의해서동기가억압될경우이들은 의식의세계에표출되지못하여무의식의세계에 내재하게된다. 형성된동기가충분히성장하여외부에표출되기위해서는내적동학이나사회동학과같은권력동학과의원력결합이요구된다. 왜냐하면논의한바와같이권력결합은권력성장의수단이기때문이다. 예로써형성된욕구가내적동학이 추구하는가치나생존본능과결합할경우이러한욕구는성장한다. 인간의내면에존재하고있는가치가사회동학과결합할경우이러한가치는목적지향적인사회적행동을외부로표출한다.

그러나논의한바와같이 긍정적인동기는권력프로세스에의존한다. 따라서내재된동기를권력프로세스를통해서외부로표출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 예로써내재된동기가다른사람의욕구와

결합하고이러한욕구들이가치를만들고관계를 통해환경에표출될경우이는긍정적인행동을유발한다. 따라서형성된동기가충분히성장하여긍정적인행동을외부에표출하기위해서는이 동기가 권력프로세스를기반으로하여 내적동학과사회동학과의결합이요구된다.

지금까지논의한바와 같이 국가 혁신시스템에서 혁신의창출과확산의유발은목적지향적인행동을 만들어내는 동기부여, 내적동학, 사회동학네트워크동학에의존한다는것을알 수 있다. 그러나이러한동학들은기능은같으나역할은다르게나타난다. 즉이들의기능은사람으로하여금목적지향적행동을유발하는것이그 각각의역할은다르다. 예로써내적동학은인간의성장과정존을 위한수단, 즉권력 원천을창출한다. 사회동학은내적동학과결합하여내적동학을강화하거나보완하는역할을한다. 또한네트워크동학은사회동학과같은역할을한다. 동기부여는직접적인동기를 유발하여사회동학과내적동학을작동하게한다. 동기부여와내적동학및 사회동학과의원력관계는순차적으로작용하거나또는 동시적으로작용한다. 우리는동기부여, 내적동학, 사회동학 및네트워크동학을국가혁신동학이라한다.

| 기술표준2007. 8